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유지은¹, 추진희², 황은애^{3*}

¹서울기독대학교 박사과정, ²마인드카페 상담사, ³백석대학교 박사과정

The Effects of Family Conflict Perceived by Multicultural Adolescent on Life Satisfaction :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Ji-Eun Yu¹, Jin-Hee Chu², Eun-Ae Hwang^{3*}

¹Student, Dept. Theological, Christian University in Seoul

²Counselor, Mind cafe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³Student, Dept. Course Counseling, Baekse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갈등,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20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2기 2차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조사 시점에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1,533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방법은 기술 분석과 상관분석 및 PROCESS MACRO Model Number 4로 매개효과와 Bootstrapping으로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가족갈등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 매개하였다. 즉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실천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키워드 : 다문화청소년, 가족갈등,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onflict,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perceived by multicultural adolescent. The analysis data used the data of the '2nd 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2020' survey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At the time of the survey, 1,533 multicultural adolescents enrolled in the fif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were selected as samples. The analysis method was verified for the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 by techn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PROCESS MACRO Model Number 4 with mediating effect and bootstrapping.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family conflict perceived by multicultural adolescent negatively affected life satisfaction. Second, self-esteem was partial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onflict and life satisfaction. In other words,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ed policy alternatives and practical programs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youth.

Key Words : multicultural adolescent, family conflict,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Eun-Ae Hwang(65akasia@hanmail.net)

Received July 29, 2024

Accepted August 20, 2024

Revised August 15, 2024

Published August 28, 2024

1. 서론

우리 사회는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 수 또한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수는 전년 대비 7.4%인 12,533 명이 늘어 2024년 181,178명으로 전체 학생(9~24세) 5,218,000명의 3.5%를 차지한다[1]. 이렇듯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한국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핍 관점에서 문제점을 설명하기보다는 다문화적 특성이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살피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아동행복지수 생활시간 조사'를 실시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청소년(초~고2 학생) 1만1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45.3점이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5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도했다[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다문화청소년패널 2기 1차 데이터[3]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4점 만점) 평균값은 3.345점으로 나타났고 2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3.251점으로 약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 집단을 비교한 기존 연구들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비다문화청소년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4,5].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만족도의 평균값이 조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이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삶의 만족도란 인지적 측면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이자 가치이며 정서적 행복함이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6,7].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이후 성인기까지의 삶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고 결정하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8] 생활 사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서 작용하므로[9],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은 성장 과정에서 따돌림, 편견, 차별, 갈등 등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받음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10-12],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이처럼 낮은 삶의 만족도는 다문화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이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만족도에 관한 관심 확대가 필요하다.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가족 갈등을 들 수 있다. 가족 갈등은 부모님과 형제·자매와의 갈등에 놓여 있고 부모님의 불화 등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청소년은 부모의 생활태도와 가치관에 따라 가정과 사회 속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은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성장해 만난 부모님의 문제와 언어 및 풍습 등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겨내야 할 많은 문제를 이미 갖고 출발하게 된다[10,13]. 이에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과 삶의 만족도 관련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의 구성요소인 부부 갈등은 가정을 긴장,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부모가 느끼는 적대감과 스트레스 등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됨으로써 자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4]. 그 결과 자녀는 불안, 비행, 우울,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고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불러오고 낮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및 삶의 만족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선행연구[15,16]에서 말하고 있다. 즉, 부모 및 형제·자매와 건강하고 바람직한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가치관이 변화하고 혼동의 시기인 청소년기를 잘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17] 하였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은 가족 내에서 부부싸움을 목격하고 형제·자매간 갈등을 겪게 되면 삶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다문화청소년의 가족 갈등은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까지 삶의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소년기는 심리적 격동과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경향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와의 마찰과 갈등이 빈번하고[18], 부모의 권위가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에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19]. 다문화청소년은 아버지가 한국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한다. 이에 다문화청소년은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일반 청소년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 갈등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을 저해하

고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이므로 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은 삶의 만족도 외에도 부정적인 자아 형성과 다양한 정서 및 행동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되므로[20] 자아 형성에 중요한 요인인 자아존중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존감이라고 불리며, 자아개념, 자아상, 자기평가 등과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으로 심리적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다[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성품을 갖추고 있으며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가족환경 및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부관계와도 관련이 된다. 부모 관련 변인 중에서 부부관계는 가정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이며[22], 특히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부 갈등과 부모-자녀간의 가족 내 갈등은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로 인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3-25].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26,27]한 결과에서 부부 갈등과 부모-자녀 갈등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은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 청소년보다 가정환경이 더 열악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가족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다.

한편,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데 좋은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28].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상태로서 여러 가지 발달적 위기를 맞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자아존중감은 발달과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혼란 등을 완화시켜 주지만[29], 자아존중감의 결여는 삶의 만족도 외에도 다양한 정서 및 행동 문제의 발생가능성을 높게 한다.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연구[30]한 결과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도 증진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도 또한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예측요인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가족 갈등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긍정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다문화청소년의 가족 갈등과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최근 다문화청소년의 가족 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여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개입 방법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근거가 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목적에 밑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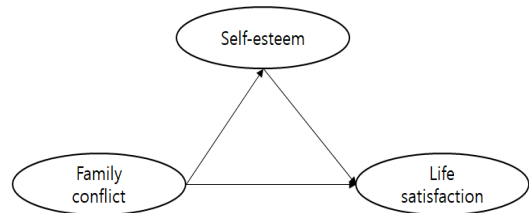


Fig. 1. Proposed Model

2.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20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2기 2차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은 2020년 기준 초등학교 5학년(2023년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 2,271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다문화 중 국제결혼 가정 자녀로 아버지가 한국인 자녀 1,533명의 다문화 청소년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삶의 만족도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Kim et al.[31]의 '청소년발달지표조사'에서 사용한 측정지표를 인용하여 다문화청소년패널 2기에 수록된 문항들을 활용했다. 전체적으로 문항 내용은 '나는 사는 게 즐겁음',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함'의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인 Chronbach's α 계수는 .787로 나타났다.

2.3.2 가족 갈등

다문화청소년의 가족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MAPS [32]에서 사용한 측정 문항을 활용하였다. 가족 갈등 척도의 질문내용은 현재 걱정거리로 '부모님 사이의 불화(부부싸움 등)', '아버지와 나의 갈등' 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1=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 4=매우 걱정한다)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갈등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하고, 신뢰도인 Chronbach's α 계수는 .852로 나타났다.

2.3.3 자아존중감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genberg[33]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Paik et al.[34]의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측정지표를 다문화청소년패널 2기 조사에서 활용했다.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함',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함' 등의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인 Chronbach's α 계수는 .816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과 상관분석을 살펴보았다. 셋째, 가족 갈등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Number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29]. 마지막으로 Bootstrap 기법을 활용하여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와 유의성 검증을 실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다문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응답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다문화 청소년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 807명(52.6%)이고 '여학생' 726명(47.4%)의 비율을 보인다. 자신의 주관적인 성적 수준은 '못한다' 138명(9.0%), '보통이다' 815명(53.2%), '잘한다' 580명(37.8%)으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연령은 '34세 이하' 448명(29.2%), '35~39세' 527명(34.4%), '40~44세' 316명(20.6%), '45세 이상' 242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533)

Variable	Section	n	%
Gender	Men	807	52.6
	Women	726	47.4
level	can't	138	19.0
	normal	815	53.2
	good	580	37.9
mother's age	34 years old and under	448	29.2
	35 to 39 years old	527	34.4
	40 to 44 years old	316	20.6
	45 years of age or older	242	15.8
father's age	44 years old and under	184	12.0
	45 to 49 years old	434	28.3
	50 to 54 years old	584	38.1
	55 years of age or older	331	21.6
mother's country	China (Han Chinese and other ethnic groups)	282	18.4
	China (Korean)	155	10.1
	Vietnam	608	39.7
	Philippines	175	11.4
	Japan	114	7.4
a day's conversation with my mother	other	199	13.0
	Less than 30 minutes	356	23.2
	More than 30 minutes to less than 1 hour	358	23.4
	More than 1 hour to less than 2 hours	280	18.3
income	for more than two hours	539	35.2
	hard	424	27.7
	normal	971	63.3
	good	137	8.9

(15.8%)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은 '44대 이하' 184명(12.0%), '45~49세' 434명(28.3%), '50~54세' 584명(38.1%), '55~59세' 248명(16.2%), '60세 이상' 83명(5.4%)으로 어머니의 연령과 다르게 '50~54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루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은 '30분 미만' 356명(23.2%), '30분 이상~1시간 미만' 358명(23.4%),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80명(18.3%), '2시간 이상' 539명(35.2%)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출신국은 '중국(한족, 기타 민족)' 282명(18.4%), '중국(조선족)' 155명(10.1%), '베트남' 608명(39.7%), '필리핀' 175명(11.4%), '일본' 114명(7.4%), '기타' 199명(12.9%)으로 본국이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베트남 국가의 비율이 제일 높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국가분포도의 변화상을 보여준다. 주관적인 가정경제 수준은 '어렵다' 424명(27.7%), '보통이다' 971명(63.3%), '잘 산다' 137명(8.9%)으로 나타났다.

3.2 기술통계 분석

측정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정규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인 가족 갈등은 평균 1.767(표준편차=.762)을 보여주고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평균 3.239(표준편차=.544)를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3.253(표준편차=.551)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측정변수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3과 10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분포를 이뤘 이후 분석을 진행하는데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1,533)

Variable	Min	Max	Mean	S.D	Skew	Kurt
family conflict	1	4	1.767	.762	.904	.214
self-esteem	1	4	3.239	.544	.408	.661
life satisfaction	1	4	3.253	.551	.459	.503

3.3 상관관계 분석

측정변수 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삶의 만족도와 가족 갈등은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r=-.251, p<.01$), 자아존중감($r=.575, p<.01$) 변수와는 정적인 상관을 각각 보인다. 자아존중감은 가족 갈등($r=-.233, p<.01$)과 부적인 상관을 보여준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family conflict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family conflict	1		
self-esteem	-.233**	1	
life satisfaction	-.251**	.575**	1

** $p<.01$

3.4 가족 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35]가 개발한 PROCESS MACRO Model number 4를 활용하였다. PROCESS MACRO 분석에서 매개효과를 분석할 때, ULCI(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와 LLCI(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값을 가지고 유의성 검증한다. 이때 LLCI는 신뢰구간 하한값, ULCI는 신뢰구간 상한값을 의미하며 신뢰구간의 하한값은 '0'보다 작고 상한값이 모두 '0'보다 크면 간접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4.1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둘 사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Table 4에 기술하였다. Model 1은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Model 2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Model 3은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과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Model 1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다문화청소년이 가족 내에서 부모님, 형제자매와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 1은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의확률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Effect= -.167, $t=-9.394, p<.001$).

Model 2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며, 직접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다문화청소년이 부모님 사이의 싸움이나 불화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모델 2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의확률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Effect= -.181, t= -10.132, $p < .001$).

Model 3에서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Effect= .553, t= 25.663, $p < .001$). 즉, 다문화청소년이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할수록 사는 것이 즐겁고 걱정거리가 별로 없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 모델 3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유의확률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델 3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는 종속변수를 34.5% 설명하고 있다. Model 1- Model 2 까지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 효과와 Model 3의 매개효과까지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Table 4. The effects of family conflict,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path	Effect	SE	t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Model1 ① → ②	-.167	.018	-9.394***	-.201	-.132
Model2 ① → ③	-.181	.018	-10.132***	-.216	-.145
Model3	① → ③	-.123	-.5.788***	-.119	-.059
	② → ③	.546	.022	25.663***	.511

*** $p < .001$, ① family conflict, ② self-esteem, ③ life satisfaction

3.4.2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앞서,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표본을 5000번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Table 5),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이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가 -.092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95% 신뢰구간에서 신뢰구간 하한값인 Boot LLCI(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값이 -.116~신뢰구간 상한값인 Boot ULCI(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값이 -.071로 0이 포함되지 않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즉,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Table 5. Bootstrapping Analysis

path	Effect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Boot LLCI	Boot ULCI
1) → 2) → 3)	-.092	.011	-.116	-.071

1) family conflict 2) self-esteem 3) life satisfaction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다문화청소년 2기 패널' 2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 중 아버지가 한국이고 어머니가 외국인 가정에 성장하고 있는 자녀 중 학교에 재학 중인 1,533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Effect= -.181, $p < .001$).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 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10].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부모-자녀 관계가 갈등 관계이면 자녀의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36].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은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가족 갈등의 발생을 줄이려고 하는 가정 내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의 부분 매개 효과를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이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자매와 서로 갈등 요인에 노출될수록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아 자아존중감 낮아지게 된다. 다문화청소년은

자신을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여 삶의 만족도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Kim[14]의 결과에서 가족 갈등의 지표인 부모의 부부 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초기 청소년보다 낮다고 하여 본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모-자녀 간 갈등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연구한 Yoon & Choi[23]의 결과에서도 어머니가 자녀를 방임하거나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하는 모-자녀간 갈등은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여 동일성을 갖는다. 청소년의 부모간 갈등 빈도가 많으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데 이는 초·중·고등학생 모두에서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여[37] 본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하면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여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여 [38-40] 동일한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2016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이용해 조사한 결과[28]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긍정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어 서로 같은 맥락을 보여준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갈등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교량 역할을 하여 부분매개하고 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청소년의 가족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 및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초기교육과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청소년은 가족 갈등으로 인해 자신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어 긍정적인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기능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각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홍보와 실행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에 기능적인 가족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박 2일 캠프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가족의 협동심을 길러주고 가족 간의 마음과 감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줄 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 갈등은 부부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부부 상담을 통해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하고 다음을 인정하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부부 상담 프로그램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청소년센터 등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체나 마을공동체에서 매년 필수교육으로 제도를 마련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의 형제자매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위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문화센터 등에서 접근하기 쉽고 현실적인 다양한 갈등 관리 및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다문화 가족간 갈등이 줄게 될 것이며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생시킬 것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기 위해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홍보와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각 문화 알리기 프로그램을 매달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지속적인 상담을 학교 위클래스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진행하고 3세대 가족 상담 진행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말과 문화교육을 위해 지역주민 및 대학생 멘토링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청소년은 학년이 상향될수록 우리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41]. 이는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청소년의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도록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한 시민사회로 변화해야 하며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시선도 개선되는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이 더 요구된다.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다문화와 비다문화를 구분하지 않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와 비다문화를 구분하는 순간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이 불명확하게 되어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시선도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엄마의 나라를 방문하고 그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모국 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3대

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다. 다문화청소년이 어머니의 나라를 방문하고 문화를 체험하면 어머니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는 우리 말과 문화를 익히는데 소홀히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배움으로 인해 자녀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맞춤형 다문화 가정 전문가를 양성할 것을 요구한다. 다문화 가정 전문가는 그 나라의 문화 및 언어를 습득하고 한국어 교사 자격증, 상담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다문화 가정 전문가는 다문화청소년과 그 가정을 이해하는 폭이 넓고 그들을 지지해 주어 가족 갈등을 완화시키는데 조력자 역할과 교사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럼 다문화청소년의 가정 내 갈등이 줄고 자아존중감은 높아져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 역사탐방프로그램 개발을 권장한다. 우리의 역사를 알게 되면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이 생겨 소속감이 높아지고 학교에서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위축됨이 없어지고 관계성이 좋아져 삶이 행복하다고 느낄 것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청소년의 걱정거리를 덜어주고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교류를 통해 다문화 수용력을 함양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으로 구성된 합창단이나 연극반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로 공연하면 나눔을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자긍심이 생겨 자아존중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위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라는 2차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가족 갈등에 포함된 지표의 다양성을 갖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가족 갈등 지표의 다양성을 갖춰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둘째, 본 연구는 다문화패널 2차 2기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셋째, 본 연구는 패널조사로 조사대상자의 내면을 깊이를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통합연구로 양적과 질적의 부족 부

분을 서로 보완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의 추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변수는 다양할 수 있는데 몇 개의 변수만을 가지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과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삶의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낸 것에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가족 갈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하는 개입을 위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이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이론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24). <https://kostat.go.kr/unifSearch/search.es>
- [2] Today Korea (2024). <https://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724>
- [3]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22). Korea's Social Trends 2022. <https://kostat.go.kr/wnsearch/search.jsp>
- [4] P. H. Kim & H. M. Yoon (2020).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in Mediation on Self-esteem: A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7(1): 25-53. DOI : 10.21509/KJYS.2020.01.27.01.25
- [5] S. J. Park & J. A. Paik (2021).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Depression on Their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and Career Attitude.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19(5): 139-150. DOI : 10.22678/JIC.2021.19.5.139
- [6] R. H. Lee., H. S. Chae & H. Y. Kim (2024). The Influence of Leisure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Social Competence among

- 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Gender. *GRI REVIEW*, 26(1): 171-195.
https://grireview.gri.re.kr/_PR/view/?aidx=39872&bidx=3588
- [7] H. M. Jung & G. J. Park (2023). The Effec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layfulness and Play Belief on Play Teaching Efficacy. *Journal of Social Convergence Studies*, 7(1): 35-47.
 DOI : 10.37181/JSCS.2023.7.1.035
- [8] C. L. Proctor., P. A. Linley & J. Maltby (2009). Youth Life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 583-630.
 DOI : 10.1007/s10902-008-9110-9
- [9] C. G. McKnight., E. S. Huebner & S. Suldo (2002). Relationships among Stressful Life Events, Temperament, Problem Behavior, and Global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39(6): 677-687.
 DOI : 10.1002/pits.10062
- [10] S. J. An., H. C. Lee & J. Y. Lim (2013). The Influences of Conflict with Parents, Peer Relationship, and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2): 77-91.
 DOI : 10.7466/JKHMA.2013.31.2.077
- [11] C. Grace H & J. Y. Lee (2016).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and Coping Strategies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Strateg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6(3): 336-362.
 DOI : 10.15709/hswr.2016.36.3.336
- [12] S. Y. Lee (2022).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Friendly Environment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Youth Research*, 29(8), 509-529.
 DOI : 10.21509/KJYS.2022.08.29.8.509
- [13] Y. Lee (2007).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Psychosocial Adjustments of Children of Multi-culture Families. Unpublished master thesis, Kong-ju University, Chungnam.
- [14] A. G. Kim (2003). Research The Effects of Parental Conflicts, Social Supports, Locus of Control Orientation on Early Adolescents'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3): 351-372.
 UCI : I410-ECN-0102-2009-330-003532788
- [15] J. H. Grych., M. Seid & F. D. Fincham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DOI : 10.22897/kipajn.2019.28.4.004
- [16] H. S. Lee (2019).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School Adjustment for Adolesc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12), 175-183.
 DOI : 10.22156/CS4SMB.2019.9.12.175
- [17] J. Y. Kim., S. I. Kim & S. A. Choi (2010). The Effects of Parental Discipline Styles on Adolescent Hostility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5(3): 121-147.
 UCI : I410-ECN-0102-2012-590-001850422
- [18] M. Beak (2000). A Study on the Parents-adolescent Conflicts. Unpublished Master Thesis, ChonNam University, Gwangju.
- [19] S. Kim & M. Chung (1997). Research : Exploration of Variables Related to Mother - adolescent Conflic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3): 181-191.
- [20] C. J. Hopwood & C. M. Grilo (2010).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ersonality Dimensions and Clinical Problems in Adolescent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1(4): 398-408.
 DOI : 10.1007/s10578-010-0175-4
- [21] S. R. Hong (2007). Romantic Attachment, Self-esteem and Love Attitudes.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25(1): 169-182.
- [22] O. Erel, & Burman, B. (1995).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8(1): 108-132.
 DOI : 10.1037/0033-2909.118.1.108
- [23] J. E. Yoon & M. K. Choi (2004). Maternal

- Parenting, Mother-Adolescent Conflict,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5): 237-251.
- [24] I. J. Chung (2007).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 Self-Esteem and Their Predictors. *Studies on Korean Youth*, 18(3): 127-166.
- [25] P. T. Davies & E. M. Cummings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411.
DOI: 10.1037/0033-2909.116.3.387
- [26] M. J. Won & Y. J. Gong (2017). The Mediation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ived Marital Conflict and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16(3): 285-299.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7128>
- [27] Y. H. Oh (2007). Relations Between Parent-child Conflicts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in Adolescents : Mediating Effects of Forgiveness and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1(3): 645-663.
- [28] S. M. Kim & H. O. Kim (2022).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equent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Using the 2016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Journal Korean Academy Nursing*, 52(3): 324-340.
DOI : 10.4040/jkan.22030
- [29] M. J. Aceves & J. T. Cookston (2007). Violent Victimization, Aggression, and Parent-adolescent Relations: Quality Parenting as a Buffer for Violently Victimized Youth.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6(5): 635-647.
DOI : 10.1007/s10964-006-9131-9
- [30] I. S. Suh., O. S. Cho & S. O. Um (2019). The Effect of Results of Early Youth's Self-Esteem and Depression is Life Satisfaction : Aggression Behavior Media Effec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6): 153-163.
DOI : 10.22156/CS4SMB.2019.9.6.153
- [31] S. Y. Kim., J. Y. Lim., S. O. Kim., S. H. Park., S. R. Yoo., J. Y. Choi & G. Y. Lee (2006). *Korea Youth Development Index Survey I: Results Partial Measurement Indicator Verificatio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32]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2020). <https://www.nypi.re.kr/evt/eventinfoView.do?>
- [33] M. Rog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34] H. J. Paik., H. J. Lim., H. C. Kim & S. R. Yoo (2017). *2017 Youth Comprehensive Survey (Research Report 2017-10)*. Seoul: Department of Youth Polic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35] A. F. Hayes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White paper]. Retrieved from <http://www.afhayes.com/public/process2012.pdf>
- [36] S. H. Roh & H. R. Seo (2016).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Focused on Parent-Child Relationship. *Introduce Academy* 21, 12(3): 1357-1371. DOI : 10.22143/HSS21.12.3.95
- [37] Y. H. Kim & J. M. Lee (2002). The Influence of Parent's Conflict on Children's & Adolescent's Self-esteem and Maladjustmen. *The Journal of Play Therapy*, 6(1): 95-114.
KMID : 1022520020060010095
- [38] S. E. Lee & N. Y. Choi (2021). The Mediating Role of Bicultural Exper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39(1): 17-29.
DOI : 10.7466/JFBL.2021.39.1.17
- [39] E. K. Gim., Y. H. Jung & D. Y. Cho (2022).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Social Withdrawal,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nd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 Multi-Group Analysis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Policy to Support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28(4): 303-327.
DOI : 10.24159/joec.2022.28.4.303
- [40] D. J. Kim & S. M. Kim (2021). The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16(2): 267-273.

DOI : 10.21097/ksw.2021.05.16.2.267

[41] D. S. Jong & J. A. Paik (2023).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Bicultural Acceptance on Intention of School Dropout :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21(6): 23-35.

DOI : 10.22678/JIC.2023.21.6.023

유지은(Ji-Eun Yu)

[정회원]



- 2005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 중문학과(문학사)
- 2019년 8월 : 한세대학교 상담심리 대학원(상담학 석사)
- 2023년 3월~현재: 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신학과 기독교 상담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 가족상담, 기독교상담, 다문화
- E-Mail : mamsimter20@gmail.com

추진희(Jin-Hee Chu)

[정회원]



- 1991년 2월 :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문학사)
- 2015년 8월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 대학원(가족상담학 석사)
- 2024년 4월~현재 : 마인드 카페
- 관심분야 : 상담심리, 인문학, 명상
- E-Mail : jinhee5678@naver.com

황은애(Eun-Ae Hwang)

[정회원]



- 2017년 2월 : 한세대학교 상담심리 대학원(상담학 석사)
- 2023년 2월 : 백석대학교 대학원(상담학 박사수료)
- 2017년 3월~현재 : 온세미로심리상담연구소 부소장

- 관심분야 : 청소년상담, 가족상담, 다문화
- E-Mail : 65akasia@hanmail.net